







〈19〉

# 전공학문 세분화가 급선무

## 교과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전공학문 세분화」가 대학 교육의 현안이다. 전공학문 세분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육은 학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공학문 세분화가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공학문 세분화가 급선무이다.

▶「전공학문 세분화」가 대학 교육의 현안이다. 전공학문 세분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육은 학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공학문 세분화가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공학문 세분화가 급선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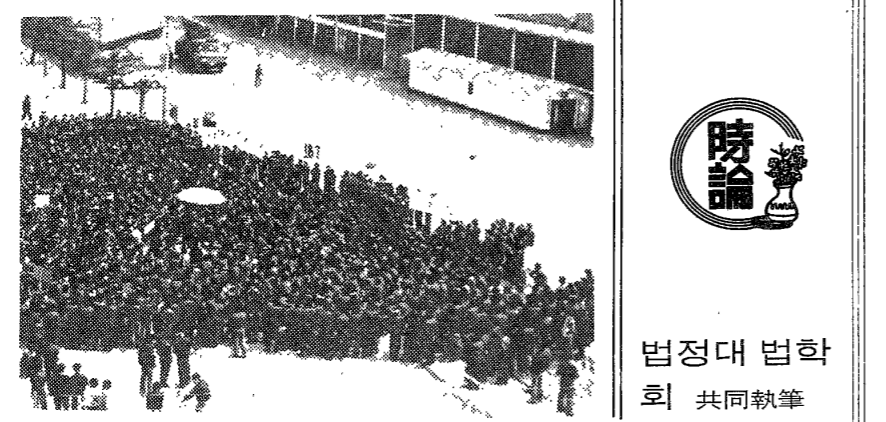
#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정 필요성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정 필요성」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육은 학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정 필요성」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육은 학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 「集示法」의 違法性에 관한 小考

▶「集示法」의 違法性에 관한 小考. 이 글은 「集示法」의 법적 효력과 그 적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集示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집시하는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集示法」의 적용 시 법적 효력을 주의해야 한다.



법정대 법학 회 共同執筆

# 「集示法」의 違法性에 관한 小考

▶「集示法」의 違法性에 관한 小考. 이 글은 「集示法」의 법적 효력과 그 적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集示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집시하는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集示法」의 적용 시 법적 효력을 주의해야 한다.

▶「集示法」의 違法性에 관한 小考. 이 글은 「集示法」의 법적 효력과 그 적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集示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집시하는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集示法」의 적용 시 법적 효력을 주의해야 한다.

# 「國政」의 重要인 點을 論한 小考

▶「國政」의 重要인 點을 論한 小考. 이 글은 「國政」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國政」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國政」의 처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國政」의 重要인 點을 論한 小考. 이 글은 「國政」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國政」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國政」의 처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國政」의 重要인 點을 論한 小考

▶「國政」의 重要인 點을 論한 小考. 이 글은 「國政」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國政」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國政」의 처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國政」의 重要인 點을 論한 小考. 이 글은 「國政」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國政」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國政」의 처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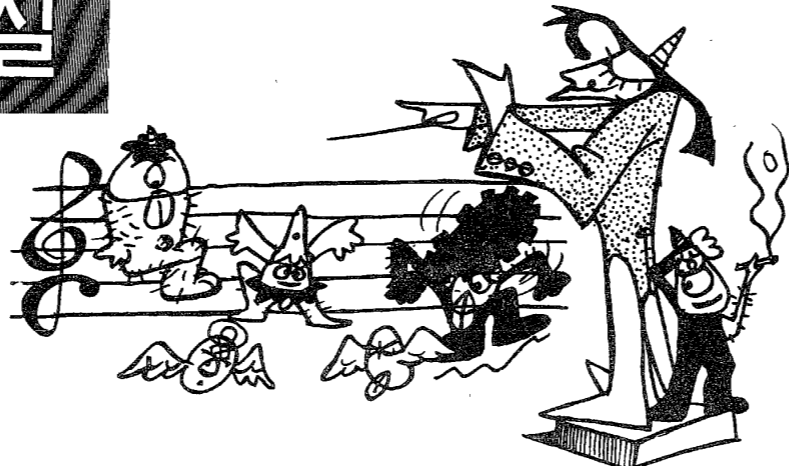
# 노래대위 부르기 상식과 진실

이영미 <노래 평론가>

I  
1980년대 전반, 특히 83-84년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대학가의 개사곡(改詞曲)은 가히 80년대 대학가 노래문화의 중요한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곡에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개사곡 혹은 노래가사바꾸부르기라는 현상은 동일한 현상이 아니라 그 발생동기나 구성원리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나, 대개 대학내의 개사곡은 일종의 노래장난이다. 노래장난으로서의 개사곡은 단지 80년대의 현상만은 아니다. 「학교풍이 없었잖아, 어서 모자라, 선생님이 뺨에서 데/데 이리 용기가 없을가야 나오나라 열대야가 됐다!」 등등 어리니의 노래장난이나 남자들이 모여 부르는 음담패설류의 노래에서 이러한 개사곡은 흔히 쓰여왔다. 그러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80년대 전반 대학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름다운 사람보다는 삶의 추하고 불관스러운 모습이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II  
노래장난으로서의 개사곡은 기존의 노래의 가사만을 바꿈으로써 원래 노래의 내용과 정서를 완전히 뒤엎는 반전의 재미를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어쩌다 빌려 온 양키들 눈에/우리 공장 문 닫아 버



## 체험의 소산으로 재미와 감동 커

렸네/어쩌다 빌려온 쪽팔리는데/우리들은 갈 곳이 없네/사장님께 할 말이 있는데/이리 용기가 없을가야 나오나라 열대야가 됐다!/즐거움 안 돼도, 수훈은 안 돼도/원리금 상환 꼬박꼬박/개관 개관 한국경제 개관 인가 봐

1982년에 크게 유행했던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유행가의 개사이다. 이 개사곡은 원래 노래곡을 그대로 빌려왔을뿐 아니라 가사와 문장구조나 단어들까지도 차용하고 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어쩌다 마주친 그대/그대에게 할 말이...」가 「사장님께 할 말이...」로, 「바보 바보...」가 「개관 개관...」으로 바뀌는 등 원래 가사의 문장구조를 그대로 모조리 차용한 개사곡의 단안만을 바꾸어 놓았다.

하므로 그 곡은 가사외의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개사곡으로 부를 때에는 원래 노래의 악곡이 나오면 사람들은 원래가사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개사곡은 그 기대를 부러뜨리고 원래가사에서 몇 단어만을 바꿈으로써 원래 노래의 의미와 정서를 완전히 뒤엎어 버린다.

이렇듯 노래장난으로서의 개사곡은 곡과 함께 수반되는 가사외의 상징적 기대를 뒤엎음으로써 오는 재미, 즉 원래 노래의 의미·정서와 바뀌어진 가사의 의미·정서와의 팽팽한 긴장감이 생명이다. 마치 년센스퀘어에서처럼 상식을 완전히 뒤엎음으로써 재미를 느끼게 한다. 바뀐 가사가 원래가사의 문장구조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곡이 수반하는 원래가사외의 기대, 즉 상징적인 기대를 확대시켜 상식을 뒤엎는 재미를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역시 재미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재미있는 개사곡은 반전의 폭이 큰 노래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노래는 매우 잘 알려진 익숙한 노래여야 한다. 원래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면 가사외의 기대가 생기지 않으므로 기대의 두뇌질 역시 생기지 않는다. 또한 최소부반만을 바꿈으로써 거의 반전의 최대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에 덧붙여 「단지 돈 있으면 돈 있으면...」을 덧붙임으로써 해서 완벽한 의미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개사곡이 재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가사는 학생들의 관념의 소산이 아닌 체험의 소산이므로 그 재미와 감동은 풍자와 해학이 잘못 사용될 때 지친 자조적이 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사곡은 공개된 사실과 그들의 생각하는 진실과의 엄청난 괴리를 보여준다. 부러지는 사람의 자기진실성에 철저한 충실한 것은 무엇이든 가지지 않는 현실적인 현실이며, 현실의 허위와 위선을 보다가 결국 허위로 폭로하는 것이 바로 개사곡인 것이다.

우리의말풀이

사나운 식육동물의 송곳니

▲추라치: 굵고 큰 송곳니 ▲나뭇: 소나 말의 배설 ▲아슴: 소나 말의 아슴살 ▲별기살: 쇠고기의 한가지, 즉바나 쥐어 리에 붙은 살 ▲쇠심때개: 심할수록 썩어질 것 ▲수구대: 쇠가죽 안에서 뜯어낸 흰 지렁이 ▲남쪽 구렁의 위치에 따라 톱날이 편리하도록 톱을 바지개같이 밀로로 넓고 허리를 수그리고 말치 행 하는 구렁 ▲아름: 뱀의 살을 썬고있는 꼬기 ▲깃주다: 외양간 마구

▲추라치: 굵고 큰 송곳니 ▲나뭇: 소나 말의 배설 ▲아슴: 소나 말의 아슴살 ▲별기살: 쇠고기의 한가지, 즉바나 쥐어 리에 붙은 살 ▲쇠심때개: 심할수록 썩어질 것 ▲수구대: 쇠가죽 안에서 뜯어낸 흰 지렁이 ▲남쪽 구렁의 위치에 따라 톱날이 편리하도록 톱을 바지개같이 밀로로 넓고 허리를 수그리고 말치 행 하는 구렁 ▲아름: 뱀의 살을 썬고있는 꼬기 ▲깃주다: 외양간 마구

## 봄처럼 따사로운 삶



임신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다. 어둡고 그늘진 마을의 구석에도 새봄의 화사한 빛깔이 물결기 시작했다. 메마른 인간의 감정에 파산한 봄물이 일기 시작한 것 같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럴싸한 말을 잘하고 자기의 합리화를 위한 가면을 너무나 잘 씌고 있었으면서도 생활의 물과가 열리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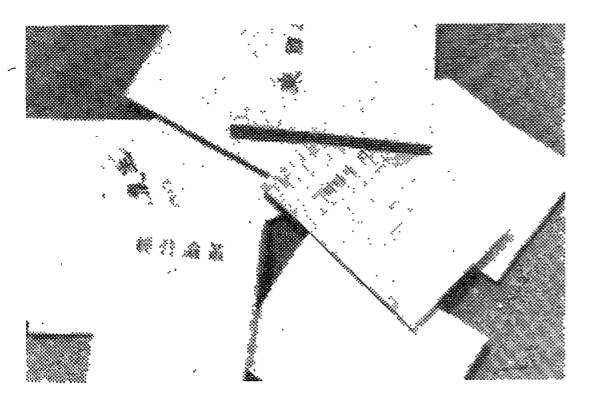
## 東岳路

간이 퍼져도 모든 이들은 그 가면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쓰러뜨려도 도둑으로 넘길 수 있는 냉철한 생각과 명예스러운 일에는 허울좋은 미소를 흘려가며 자신이 존경받을

## "부와 권력 약자위해 베풀어야"

말음과 신뢰넘치는 사회를 인간에게 동물적본능이 잠재

수 있기만을 바라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인간들이 나타나 할 것 없이 우리라는 주변에 동물처럼 잠재해있는 사실을 본다. 나약한 인간에게는 힘겨운 규제가 있으면서도 권력과 부가 있는 인간에게는 행하여져도 된다는 예외의 베풀어주는 인간이 많다. 얼마전 신문지상에 공개된 호화로운 결혼식에 등장한 사람들의 명품과 귀한 선물은 우리 나약한 서민에게 불신의 눈 속에 파져져 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다.



## 학교·학생...규제와 저항의 악순환만 되풀이 교내 각종 간행물 문제 많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민 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윤리와 국가안보에 기강을 해친다는 명목을 내세워 2백98종, 4천 2백여부에 달하는 각종 서적을 불온서적의 유통을 위해 압수, 폐기하였다.

불온서적 단속방향이 발표되었음에도 대학가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익히 접해왔고 또 접해야 하는 상당수의 이념서적이 압수처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에 신성한 학문탐구의 영역까지 침범한 행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했었다.

이 조치의 악영향이 이

의도에 따른 학생자치회비의 50%삭감에 의해 큰 혼란을 빚고있다.

지난달 15일 배부예정이었다는 것이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것은 대학언론의 통제라는 문교당국의 입김과 예산부족에 의한 배부축소조정이 그 이유이다. 그대의 경우 「제3세계의 군부독재」라는 특집기획이 배부부류의 이유라는 뒷소리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학교당국이 주체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大의 교지나 동과 배부부류를 살핀뒤 조실스레 내놓겠다는 처사는 타율적 행위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내용에 있어서도 학술위주의 아카데미즘에만 중점을 두는 편향을 강조하고 있어 편향적 결구성이 현 실이다.

단체지의 경우 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다. 대안이 없는 부분적 지식의 습득 장소가 아닌 全人的 학문

수행을 필요로 하는 불이라는 전제를 든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단대성결을 연 단대지 간행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바깥쪽 방향을 부인하고있다.

9개 단대중, 학기별 학술지가 발행되는 단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자신들의 사상과언론을 발표할 배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과대의 경우 단대지성결(원법적)을 연 약40페이지로 된 「하나라」라는 부정기 간행물이 한학기 한번 정도로 발행되어 현재 제3집을 내놓고있다. 시사성은 3개와시사투고 글로 다루어지는 「사노라」와 「타는 목마름」이 가 내용의 주류를 이룬다.

『타는 목마름』은 산수적 분별마저 잃어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작은페이지로 서 경청하고자하는이들의우주를 다충족시켜주지못한아이쉽 습니다』라고 문과대학부장규군은 씩씩하게말하고있다.

## 東國漫評



◇누구시갈래...

세계적인 품질, 세계적인 상표 - 스매트

SMAT

올해도 여러분의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스매트는 맑은 음을 들려주는 어학 공부의 파트너입니다.

보다 여유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스매트는 완벽한 음을 표현하는 음악감상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결실을 위해 스매트는 젊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파트너입니다.

스매트는 올해도 학생 여러분의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스매트

신경매그네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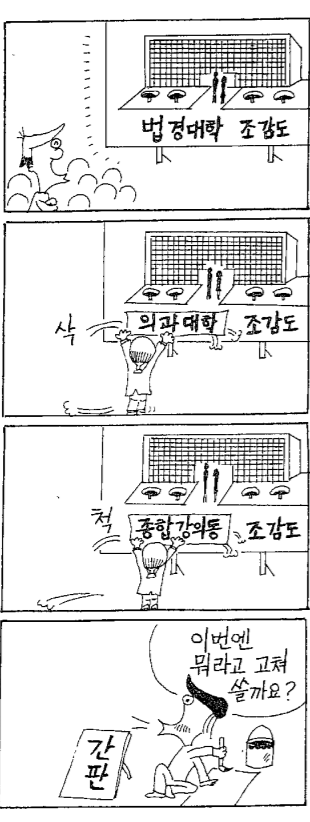
●판 매 부: 269-1811~5

●소비자상담실 275-3531, 3631

●레코딩점 슈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여로니



### 討論없는 시대의 討論

이신형 編  
우리 시대 한국 대학생들의意識, 思想들을 폭 넓게 보여주는 짧은이들의 現場의 목소리「討論없는 시대의 토론」이 출간되었다.

### 社會科學原論

金洛中 著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사상이나 제도의 규명보다는 공동체적인 민족의 삼 자체에 분할 수 있는 사회과학 체계의 구성을 목표로 한 金洛中의 「社會科學原論」이 출간되었다.

### 시민지시대 사회운동

한대희 編著  
일제하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민족주의운동 등 사회운동의 내용을 소개한 「시민지시대 사회운동」이 출간되었다.

### 반도패션



작년 여름에 순두부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한여름에 인적 드문 버스 종점에서 뜨거운 순두부를 팔려는 나의 행동은 스스로 돈키호테처럼 생각되었으나, 예상보다 순두부는 비교적 잘 팔렸다. 나의 사업체 앞에 버리고 서있는 가게집 아주머니의 뒷에도 나의 부러운 눈과

### 수필

아산을 뒤서는 안면공막으로 잘 무뎠고, 동네 주먹 패거리들도 몇 그릇의 순두부와 몇잔의 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음으로써 든든한 호위병으로 전향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인간의 단절 표현한 극적효과

부조리극 (The theater of Absurd)은 양차대전 이후 상실한自我를 되찾고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려 애쓰는 인간의 人間回復을 기도하는 실존주의적 무드에서 파생되어 오늘날 現代劇의 공간이 되었다.

### 메이리

▲가 품은 극이나 영화, TV에서 한 사람의 배우가 두사람 료의 연기를 같이 해낼때가 있다. 이른바 1인2역이다. 이 演技는 한사람이 두사람의 재능을 발휘해야 하는 까닭에 능숙한 배우가 아니면 행한 해내기 어려운 技術이다.

전뿔뿔에 응크리고 앉아 있었다. 보안대에 반쯤 비친 얼굴로도 대변에 정상적인 아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녀석에게 순두부를 먹었다. 두 그릇째 퍼주면서 물어보았다. 『포마아 너 집이 어디니?』 『.....』

### 수요·공급 불균형의 원칙



음식을 다 먹고 녀석은 원래 앉아 있던 자리에 가버렸다. 곧 운전기사가 들어왔다. 때때로 한 소리의 여운, 빈그릇, 빈소쿠리 등을 남긴 채 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아까 그 꼬마가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복비권을 행사하는 그 녀석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가려고 빈객 들었으나 녀석은 어느 틈에 들었는지 플럼으로 나를 치려고 하였

### 경망스런 연기는 주제 해칠 우려

여기서 관객은 묘하게 조작된 언어의 혼란속에 휩싸이게 되는데 네명의 배우들은 세련된 연기로 이것을 리드해 나간다. 즉, 암상들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의 인물들을 무리하거나 어

### 百戶 감시제

택시기사의 본분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그에 응분하는 댓가를 받으면 그만인 것을 密藏(?)의 입부까지부여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애기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시민전체를 不潔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모두 규정하고 모든 택시기사는 운전기사인 동시에 감시까지하라는

「가기가 어머님입니까?」 「어기 XXXX님 종정입니다.」 「그곳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곳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보세요. 그럼 이곳 관할 파출소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 「답을 알면서도 외칠수 없었다」

「가기가 어머님입니까?」 「어기 XXXX님 종정입니다.」 「그곳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곳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보세요. 그럼 이곳 관할 파출소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 이 선 회

세일즈맨의 죽음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서 극단 중앙무대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오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무대에 올린다.

### 한길 역사기행

한길사 주최로 5.6양일간 출판사 한길사 주최 제6회 한길역사기행이 오는 5일, 6일 양일간 珍島를 중심으로 多島海 지역에서 있게 된다.

### 제39회 수상전

오는 4일까지 표화관에서 제39회 수상전이 표화관에서 오는 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의 출품작가는 黃瑜琳, 張利錫, 裴東植씨등. 흥사단 금요 개척자 강좌 「한국영화의 역사」 주제 흥사단서 울지부에서는 4월 금요개척자 강좌를 흥사단 강당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어?」라는 내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전화는 벌써 끊어졌다. 나는 꼬마가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녀석이 없어졌다. 그저 나를 위하했던 돌멩이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허허로웠다.

### 문 경 보

그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전투복과 사복을 입은 경찰수배병이 단 한명의 연사를 연행하기 위해 이 東路를 마다마다기어 올라왔다. 그들이 우리 경찰이라던 그들과 우리 사이에 느껴지는 지독한 이질감과 두개로 나뉘어진 침묵의 공간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손이 모자라서 어떤 아이 하나도 보살피지 못하는 경찰활동이 그렇게 대학생에게 지독한 관심을 보여 수많은 별명을 배지시킨다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다.

### 제21회 高校生文學작품모집

本校에서는 開校 80周年을 紀念하여 全國의 男女高等學校 文學徒들을 對象으로 創作意慾을 高揚하고 나아가서는 未來의 韓國文學를 이끌어갈 文才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要領으로 第21回 全國男女高等學校 文學콩쿠르를 開催합니다.

### 제21회 高校生文學작품모집

本報에서는 開校 80周年을 紀念하여 全國의 男女高等學校 文學徒들을 對象으로 創作意慾을 高揚하고 나아가서는 未來의 韓國文學를 이끌어갈 文才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要領으로 第21回 全國男女高等學校 文學콩쿠르를 開催합니다.

### 東大新聞社



###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를 읽고

### 모성애가 인류에대한 사랑으로 인간의 양심·희망·용기 상기시켜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에서 가장 뛰어나고 생명력을 갖는 것은 한 평범한 사람이 차츰차츰 정의의 투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어머니」에 나오는 인물들, 어머니-닐로라 파벨, 안드레이 등 모든 인물은 실제로 존재한 사람들을 묘사한 것이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장 역시 막심 고리키의 고향인 당시 노동운동이 절예하던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크라스노에 소로모보 공장이 되고 있다. (니즈니 노브고르드는 막심 고리키를 기리기 위해 1932년 고리키시로 개명된다)

### 開校 80周年 紀念

### 제21회 高校生文學작품모집

本校에서는 開校 80周年을 紀念하여 全國의 男女高等學校 文學徒들을 對象으로 創作意慾을 高揚하고 나아가서는 未來의 韓國文學를 이끌어갈 文才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要領으로 第21回 全國男女高等學校 文學콩쿠르를 開催합니다. 每年 文學徒를 발탁하는 이 뜻있는 전치에 많이 參加하여 榮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 東大新聞社

